



자크 엘룰의 '도시의 의미'

김원호

자크 엘룰의 저서 도시의 의미는 엘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책이지만 이 책을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엘룰의 완벽한(?) 성격상 너무 자세하게 상황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이유도 있겠고 또한 엘룰 특유의 혼자 생각 속에서 나열하는 서술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든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경말씀에서 귀납법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익숙했지만 엘룰이 사용하는 저술 방식은 변증법적인 방식이고 이는 이 세상에서 문제의 출발점을 두면서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는 연역법 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은 엘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기에 꼭 읽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책을 요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소 난해한 책을 고통스럽게 읽어서라도 꼭 엘룰을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엘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을 바로 엘룰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엘룰은 이 분야에서 어느 누구의 추종도 불허할 정도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엘룰이 다루고 있는 저서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위 세상학문인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저술활동이다. 그가 기술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전 세대는 경제가 이 세상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기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기술에 대한 저술들은 아직도 미국 주요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고 훌륭한 책들이다. 또한 엘룰의 두 번째 저술 영역은 바로 신앙의 영역인데 엘룰이 다루고 있는 신앙의 영역은 일반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역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신앙적인 면에 접근했다면 엘룰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서 출발하여 신앙의 영역에 이른 것이고 이러한 실존주의적 접근방식은 케어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엘룰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의 신앙의 영역의 저서들은 주로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적인 영역과 신앙적인 영역에서 동시에 저술활동을 했던 저자들이 거의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없었기에 엘룰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엘룰을 알아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기술사회라는 것이다.

이 시대는 모든 분야가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되어가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분야가 기술에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종속되어있기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없이는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고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에 엘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존주의적 저술들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엘룰의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만 할 수 없기에 엘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없이 엘룰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칫 한쪽으로 치우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엘룰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군다나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들을 엘룰에게서 찾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 엘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이것이 엘룰을 알아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면으로 엘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의 저서 도시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책이다. 도시의 의미를 요약하기 전에 먼저 도시의 의미와 관련해서 엘룰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또한 도시의 의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만한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엘룰의 도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로 엘룰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보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학생 때에는 가정교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했는데 가족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주 동안 가정교사로 수고했던 비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굶주려야만 했던 경험들은 매우 고통스러웠던 추억이었을 것이고 그에게 경제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사회학을 다룬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의 평생의 생각의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직장이 생기자마자 바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었고 런던과 베를린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파괴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문제가 있었기에 엘룰에게 있어서 기계문명은 그 발달만큼이나 고통이 증가하였던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에게 기술의 발달은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속박시키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엘룰은 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마르크스의 방법이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혁명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가운데 너무나도 커다란 장벽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의 경제문제가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또한 기술에 대한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신앙은 결국 삶과 존재의 답이 될 수 있었기에 삶과 존재의 답이 될 수 없는 이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엘룰의 접근방식은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적 방법론과도 일치하였기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적 접근법에서 답을 찾으려한다는 신앙의 접근방식에서 비판을 받기도한다.

세 번째로 고려해 보아야할 점은 엘룰에게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인 장 보스크에게서는 신앙적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장 보스크가 바르트 신학에 심취되어있었기에 엘룰도 바르트의 영향에서 자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칼 바르트 또한 실존주의의 길을 열어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엘룰이 가졌던 초기 칼빈주의적 신앙은 현실문제의 벽에 부딪혀 해답이 될 수 없었기

에 그의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한 칼빈주의적 신앙은 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바르트적인 신앙의 색채가 이 도시의 의미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일맥상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엘룰이 도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며 또한 엘룰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술사회에 대한 문제와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동시에 보여주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이 책의 요약을 읽게 되면 도시의 의미를 읽을 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도시의 의미는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1장에서 도시의 유래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시들이 겪어왔던 역사적 사실(2장)들과 그러한 절망적인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3장)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도시들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있는가(4장)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참된 도시의 모습(5장)을 제시하면서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모습(6장)을 설명하고있다.

제 1장 건축자들

제 1장은 네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건설되고 발전되어 갔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면 세 번째로는 이러한 세상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통하여 맥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네 번째는 이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건설되면서 도시가 모든 이들에게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I. 가인

가인은 최초의 도시의 건축자이다. 그가 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벨을 죽임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상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자하는 평안과 안식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가인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에덴의 동편 낫 땅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자기만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는 자녀와 성읍의 이름을 동일하게 에녹이라고 명명하면서 에덴과 관계없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의 에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되고 이는 에덴의 회복이나 재건이라는 의미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개벽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의존적인 모든 관계성을 끊고서 스스로 과거에 대한 치료책으로 대안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책들은 새로운 불순종이며 새로운 범죄가 된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의 가설로 떨어뜨리며 불필요하고 비실재적인 존재의 영역으로 떨어뜨린다. 문명은 도시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며 가인과 에녹이 새로운 시발점이며 낙원은 하나의 전설이되고 창조는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린다.

그는 새로운 시작의 방법으로 장인 기술을 창안해 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러지는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부적합하게 만들어버린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시골의 관계를 설정하고서 도시 문명을 통해서 시골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설정된 운명적 관계이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성경은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똑같은 판단과 똑 같은 가치평가를 도시에 대하여 내린다.

도시는 단순히 성벽을 가진 가옥들의 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의 존재이기에 하나의 정신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힘은 가인의 하나님께 향한 힘과 증오의 모습을 가진 반항을 표시가 된다.

II. 니므롯

가인과 마찬가지로 니므롯도 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에서 즉각적인 대응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결과라는 것이다. 함이 자신의 강함을 천명하면서 힘을 키웠던 힘의 정신은 하나님의 처단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다.

최초의 사냥꾼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현전 앞에서 분리한 자로서 이는 아담이 범 죄 후에 하나님과의 분리의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약탈자 정복자라는 의미에서의 사냥꾼으로서 하나님의 고정된 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니므롯의 힘은 약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읍들을 건설함으로써 니므롯의 후예들은 힘의 정신, 정복, 도시 건설이라는 인간의 의지를 도시의 정신으로 결부시키게 된다. 이제 도시는 전쟁이 벌어지는 중심이 되며 도시문명은 전쟁의 문명이 된다.

니므롯은 시날 땅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거하였는데 이 시날의 왕들은 하나의 영적인 힘의 현현으로서 또 악에의 유혹의 현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어왔다. 시날은 아브라함과 싸움이 있었고 아간의 범죄와 연관이 있었고 느브갓네살이 성전 기명을 두었던 곳이다. 이러한 시날 땅에 세워졌던 도시들 즉 에레과 악갓, 갈레, 르호보달, 갈라들은 인간의 힘을 나타내는 큰 성들이 되었으며 이들은 무시무시한 괴력들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덮칠 준비가 되었던 곳이다. 이렇듯 도시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운집하다, 한데 모이다의 뜻과 같이 교회에 대한 위협이며 교회가 포로가 되고 먹이가되는 장소인 것이다.

니므롯의 중심지 중에 바벨을 빼 놓을 수 없는데 바벨은 “신들의 문” “혼돈의 장소”라는 뜻으로 단호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자했던 곳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자연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장소이며 인간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도시는 인간의 정복이 확고해지는 장소이며 정복에 대한 기념비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며 하나님의 개입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성벽이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진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 깨뜨려짐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 개의 언어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실재로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조차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무서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유효한 진리를 형성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진리는 단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논란의 여지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도시 속에서 도시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게 되며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지내게 된다. 도시는 이러한 영적인 힘의 장소이기에 인간은 더 이상 그것을 알지 못하며 도시를 건설하려는 각각의 시도는 무의식적인 계획의 실패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벨론의 내적 성격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이고 필요였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군대나 성벽의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도시 그 자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도시들은 바벨론에 포함되어있고 바벨론은 모든 도시들의 종합이다. 바벨론은 다른 모든 도시의 대표로서 문명의 중추이다. 산업은 도시를 위하여 가동되며 산업은 도시에서 발달되기에 도시는 문명의 고향이며 대도시들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문명은 없고 한 세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도시는 하나의 영적인 전쟁의 장소이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장소이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기에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 속에 산다는 것은 한 인간을 비인간적인 길로 내던지며 검은 여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

III. 이스라엘

결국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스라엘에게 맞추어진다.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나 도시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도시와 연루되었던 것은 애굽의 노예상태에서였다. 그것도 아버지의 저주 아래있었던 함의 자손 미스라임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세상의 왕에게 굴복한 것이다. 주의 백성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붙들린 채로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건설한 비뚤은 태양신의 집이었고 이스라엘은 사단이 놓은 영적인 덫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자 그들은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기드온은 세겜에 에봇을 둠으로서 경배의 대상인 약속의 바알을 만들었고 이러한 무서운 혼합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성읍들에서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로 이 성읍들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폐위시키길 원했다.

여리고의 멸망은 힘의 정신의 패배의 상징인데 여리고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재건된다. 이는 하나님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유혹이었으며 여호수아에 의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저주를 받은 것은 여리고를 재건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재건 속에 내포된 모든 의미이다. 여기서 인간이 도시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무릅쓰는 것은 그 필요성이 그토록 크고 유혹적이며 그토록 선하고 진실되게 보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농민 왕이었으며 도시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건설자의 칭호가 부여된다. 솔로몬이 첫 번째 불순종을 행한 것은 노예제도속에서 도시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모세의 법을 어기고 문 안에 사는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솔로몬은 바로 밀로의 역사감독 여로보암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찢김이 선언된다. 솔로몬이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기 전 도시들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그가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위하여 도시 건설을 시작한 때였다. 그는 바알의 집을 건축한 사람에게 여호와와 그의 집의 건축을 맡겼던 것이다. 솔

로몬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바로 도시 속에 물질화된 힘의 정치를 결심한 지점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각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방패와 창을 두었으며 율법을 버림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본받게 된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솔로몬의 후계자답게 성읍들을 건설하면서 힘의 정치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혼합은 교회사를 통하여 늘 반복되어왔으며 믿음과 전통사이, 교부들의 전통과 조상들의 전통사이에 있어왔다. 그러나 일단 힘을 가진 이상 가면을 계속 써야할 이유가 없었기에 도시의 힘과 연계를 만들게 된다. 도시는 그 기초를 물질적인, 혹은 보다 더 정확히는 세속적인 생각에 뿌리를 박게되어 최고의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생기는 망상은 예수님이 실패한 곳에서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으며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일치를 보는 것은 오직 그들이 배교자라는 사실하나만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압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건축하자

모든 역사서 가운데 단지 역대기만이 성읍의 건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들이 광야시절과 유목생활하던 때를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시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가 유목생활에 대한 배반이며 따라서 거룩성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이러한 비난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에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 유목생활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이 멀어졌고 도시문명이 빛을 발하여 모든 세계에 퍼진 때에 역대기를 쓰고 있지만 도시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태도는 선지자들과 같은 것이다. 역대기는 도시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유력한 형태의 하나로 생각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자의 생각 속에서 도시건설이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의 표시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행동들이 한 교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죄는 한 개인의 개별적 행동이라기보다 전 백성의 행위이며 왕은 그 종합으로서 함께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행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외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마음의 뿌리가 악하므로 모든 이성과 지식에 반대되게 행동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시는 하나님과 바알사이의 선택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현명한 통치행위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시문제 속에 표현된 것은 필요성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영적인 힘은 은총의 정신과 충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이고 당혹스러운 문제를 만족 시킬 이론상의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대답은 세상의 필요와 자유사이의 갈등,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미련함 사이의 갈등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이미 존재해있으나 숨겨져 있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괴물과 대면을 해야한다.

제 2장 도시에 올린 뇌성

제 2장에서는 도시가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도시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그 가운데 희망을 소돔과 니브웨에서 보았고 또한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도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I. 저주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서 지탄 받게 되며 이는 도시 거주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시 자체에 대한 것이다. 도시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신비적인 몸체로서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도시 거민에게가 아니라 도시 자체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질책의 말씀은 회개가 아닌 죽음에 이르는 저주의 말씀이다. 도시는 그 거민들과 같이 멸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저주는 인간의 기원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현전성 때문이다. 도시에서의 사람들의 노력은 무덤 외에 출구가 없으며 도시의 천사는 흡혈귀와 같이 자신의 일을 계속해나가며 더 많은 새로운 피를 요구한다. 해결책은 재난을 겪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법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시에 대한 법을 주시는 대신에 도시를 저주하고 처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시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벨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은 모든 도시의 표상이기 때문에 로마를 비롯한 역사 속의 모든 도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언급되는 바벨론은 지리적인 장소보다 영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하여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대도시들에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전쟁의 동인이 시골이 아닌 대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도시는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군사적 정복의 시발점이 된다. 도시는 문자 그대로 최악의 사회적 온상이 되며 소돔은 단지 하나의 예표일 뿐이다. 도시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피의 타락한 교제에 참여하게하며 도시는 주움에 대하여서도 힘을 자랑한다. 도시의 힘의 근간은 단지 인간존재만이 아니라 자기고유의 존재이유이며 자체로서 충분한 힘이고 자기 고유의 충분한 영성이기에 하나님을 배제시킨다. 결국 도시는 개선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 도시는 그 속에서 소원한 모든 것이 정죄되며 돈은 흩어지고 힘은 무가된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위에 똑같이 임하는 심판을 본다. 도시는 인간들 자신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도시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성격 지어지는 악한 힘에 참여하였기에 저주를 받는다.

II. 소돔과 니느웨

하나님의 뜻은 도시의 천사가 저주를 받고 도시가 망하게되는 것이지만 인간들이 도시와 같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출구를 남겨놓으신다. 도시가 정죄되는 것은 도시이기 때문보다는 오히려 도시와 인간의 특별한 죄의 연합 때문이다. 하지만 룿이 소돔에서 구원 받은 것과 같이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지만 소돔은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니느웨는 하나의 전쟁의 도시의 특징을 가지면서 소돔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회개를 통하여 심판을 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저자는 니느웨의 회개는 사실보다는 의미의 문제로 진실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개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III. 그러나 이들 도시에서는

도시는 간수와 포로의 연대성과 같이 우리가 도시의 번영을 위하여 참여해야만 하고 그 가운데 사업을 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시 위에 굽어 살피시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의 포로이다. 저주가 도시에 임한다면 모두가 도망쳐야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파괴하라고 요구하시기 이전에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처단에 의해 말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날과 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시를 정죄하실 것을 알아도 이 심판에 편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도시에 대하여 호의적일 이유도 없다. 우리의 의무는 도시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이러한 기도는 도시 자체의 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되고 사단의 복수를 야기하게 된다.

도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심판이 보류되지 않고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 때에는 도시에서 나와야 한다. 이처럼 도시를 떠나는 행동과 교회가 그 때 도시에 선포해야하는 말은 어느 때나 아무렇게나 수행될 수 없다.

제 3장 오랫동안 우리는 새벽을 기다린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I. 일시적 선출

인간의 작품인 도시는 죽음을 위한 열정을 갖는다.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고자 애쓴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면서 폭력을 선택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도시들을 선택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도시의 정죄가 아니라 교회의 구원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는 도피성의 역할과 같은 하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이루실 구원의 표식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II.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피의 도시이고 교만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이면서 여전히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예루살렘에서의 우상숭배는 절정에 달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진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는데 이는 사람들의 힘의 위대함이나 의와 거룩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도시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가 예루살렘의 절반조차도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알수있다. 바로 인간의 창조와 교만의 도시에 속한 예루살렘이 하나의 폐허가되는 묘지로 처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인간이 거부하기를 원하는 그 세계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의 지평에서 인간의 언어로 만나시는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기에 가인의 거대한 시도는 다윗에 의해서 좌절 되게 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가 된 순간부터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도시가 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간의 지평이 아닌 다른 한 지평에 있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 속의 예루살렘을 선택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건축자가 되신다. 인간이 만든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예고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희망이 제거가 되지만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나타나는 장소가 된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은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이 선포되는 순간이며 거기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므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없게 된다.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선포로서의 의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예루살렘의 유일한 가치는 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예루살렘은 단지 자신의 사라짐과 대체를 예고하기 위해 거기 있을 뿐이다. 마지막 창조에 대한 일종의 준비로서 지상의 예루살렘은 이미 자신 속에 새로운 창조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 4장

제 4장에서는 도시의 완성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셨는지를 보여주고있다.

I. 완성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을 일깨우시는 것이며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신것도 이러한 도시의 힘의 논리를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는 힘의 논리를 적용하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됨으로서 결국 태초로부터 도시에 선포된 심판을 다시 CLN하게되는 것이다.

II. 집도 가정도 없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취했던 행동 방식과 대조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서는 하신다. 이는 가인의 죄와 더불어 시작된 인간의 자기방어적인 죄의 모습들을 다시 되세기면서 그 안에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탄생 시부터 집도 없이 마굿간에서 태어나셔야했고 또한 해롯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도시에 올라가신 것은 도시를 떠나기 위한 것이기 도시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었다.

가인이 성에 머물며 보호를 받기 바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유일한 보호는 오직 하나님의 세계였다. 예수님은 인성과 전 삶의 과정 속에서 도시세계에 대하여 하나의 이방인이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도시 예루살렘의 거부에 의해서 성문 밖에서 희생이 되신 것이다.

III. 다수대중

이스라엘의 다수의 대중들은 항상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다수의 군중들을 종종 광야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이 도시에 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군중들은 우유부단하고 분열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시지는 않으셨다. 도시는 기술자와 정치가의 합작품이기에 군중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광야에 대한 선택이 인간의 힘이 포기되어야 할 장소이었기에 선택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자크 엘룰의 「도시의 의미」를 통한 현대문명의 신앙적 고찰

자크 엘룰의 대표적 저서중의 하나인 도시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엘룰이 제시하고 있는 도시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살면서 접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엘룰이 도시의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방식의 특성에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룰의 방식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문화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수면 위로 노출 시켜서 우리가 이제껏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면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 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물론 도시의 의미 한 권만을 읽고서 엘룰을 이해하거나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엘룰의 다양한 저서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들이 크게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학분야의 책들과 또한 이러한 사회학 분야의 많은 문제를 변증법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접근방식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신앙서적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의 의미는 이 두 분야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책이라는 의미에서 엘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엘룰의 신앙적 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과 많은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엘룰에게서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엘룰이 제시하는 신앙의 반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많은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책이기에 다음과 같은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1.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펴본 도시의 의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상된 관계가 인류의 역사에 어떠한 식으로 나타났느냐를 관찰해보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도시의 의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정보라면 도시의 유래 및 발전 과정과 예루살렘을 통한 도시의 신앙적인 측면들을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발전 과정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상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 속에서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의 도시문화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었기에 도시 문화를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자크 엘룰의 저서가 거의 충격에 가까게 다가온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시문명

의 발전과 더불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이제는 조그마한 회복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지는 듯이 보인다. 도시의 의미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서 구분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죄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적인 면으로서의 도시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은가하는 점이고 또한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면은 마치 도시의 문명을 떠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절망에 직면해야한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도시문명을 떠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의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아가느냐하는 방향성의 문제로 확대되기에 과연 엘룰이 제시하는 저주와 심판 그리고 절망 가운데 오는 희망의 논리로 결론이 이르러야만 하느냐의 의문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생각의 관점의 차이는 커다란 신학의 방향성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좀 더 근원적이 아닌 표면적이고 경험적 이성에 바탕을 둔 해결방식은 칸트로부터 시작되어 키에르케고르를 거쳐 칼 바르트에 이르러 체계화된 실존주의적이고 변증법적인 방법을 엘룰이 도입하여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증법적인 방식이 엘룰의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도 도입이 되고 있고 이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2. 도시의 발전 방향성

엘룰은 사람들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도시의 방향을 바꾸고자하는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논리가 아니라 헤겔의 변증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헤겔은 절대정신 혹은 절대 이성은 그 자체를 세계의 역사 안에서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하는 과정에 의해 스스로 풍요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이 가능했던 것은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이 칸트가 말하는 이성과 같은 개념이고 이러한 이성의 개념을 칼 바르트와 자크 엘룰이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그 자체가 사실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변증법적 전개방식은 우리의 이성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나간다면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으로 풀려야하는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든 도시는 도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사람들이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엘룰은 설명한다. 도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으로 인하여 이를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공격을 가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도시는 도시들 간의 연대성을 통하여 더욱 확장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기에 이를 거역하는 인간은 한없는 무력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이제 도시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세계 자체가 되어버렸다. 도시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다. 아미쉬들과 같이 집단적이 아니고는 도시문화를 거부하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엘룰이 이야기하는 기술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미쉬가 그리 효과적으로 도시문화를

벗어난 것은 아니기에 아미쉬 조차도 도시문명 속에서 사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엘룰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도시 스스로가 가고자하는 역동적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것은 마치 더 이상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를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기를 포기하신 것과 같이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러한 절망마저도 넘어서는 것이고 종말론적 심판을 향하기에 절망적인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희망에 맞추어 연역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귀납법적으로 볼 때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코 하나님은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전적 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나가신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하고 이는 이미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고 최후의 심판까지는 계속 진행되어야할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엘룰이 바로 절망 뒤에 오는 희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바르트가 부정하고자했던 하나님의 내재성을 엘룰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이다.

3. 현대도시들의 부정적인 특성들

1) 친환경적이지 않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도시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친환경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인데 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겠다는 뿌리 깊은 죄의식의 산물이고 이러한 결과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엘룰이 설명한 것과 같이 가인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된 도시문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현상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영역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조자의 역할을 하면서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 속에서는 엘룰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서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고 여기에 이의를 제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들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도전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인공조명을 비롯하여 인스턴트 식품과 자동차등을 이용한 교통의 발달과 식품이 아닌 화학제품의 약들과 시멘트 건축물의 일반화등은 결국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만 결과만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있기에 이러한 다양한 해결방식들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한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기에 인간이 직면한 현실은 엘룰의 생각과 같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사람들이 더욱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죄

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의 하나이기에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절망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된 인간의 내면의 죄의 뿌리가 어떠한 것인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죄의 현상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욱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릴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는 희망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죄가 죄로 드러날 때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집을 나간 탕자가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극단적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심판과 저주에 의한 절망에서 찾는 희망이 아니라 그 이전에 회개함에서 찾는 희망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서 볼 수 있는 희망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인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로 생긴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원인적인 접근법보다는 결과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의 해결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에 인간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원인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적인 접근법의 결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면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적 접근법은 엘룰도 똑같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원인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있는 것도 있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더라도 계시의 의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에 의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로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엘룰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칸트의 변증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변증법은 자율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은 궁극적 결정론자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키에르 케고르와 칼 바르트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에 키에르 케고르와 바르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엘룰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깊이 살펴봐야하고 엘룰이 적용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은 너무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면이 없지않나 생각된다.

3)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

개인이나 조직,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소는 그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것이다. 또한 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요소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익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또한 도시문화 속에서 형성된 도시교회들에 있어서조차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 능력이 발휘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치관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는 만큼 이미 죄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치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왜곡된 가치관으로는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기는 거의 불

가능해 질 수 있기에 엘룰이 이야기하는 절망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으로 더욱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수단으로서 필요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은 어떤 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안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엘룰은 도시문명과 더불어 왜곡된 가치관을 걱정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4) 단편적인 욕구충족의 기능 (비인간화의 원동력)

가치관이 변화된 사회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그러한 가치관을 만든 사람들일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가치관의 희생물이 되어 스스로 지옥이라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익의 창출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서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람의 존재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으며 사람의 가치는 생산능력에 의해서 결정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듯 관심의 초점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대할 수밖에 없기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조차 말씀이 왜곡 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써 결국 성경은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람들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돈이 지배하는 왜곡된 가치관으로 운행이 되는 도시는 엘룰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하듯이 엘룰이 마르크스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답을 키에르 케고르의 실존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찾을 수 있었던 왜곡된 접근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계시 의존적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도시를 지탱하는 원리

엘룰은 경제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이야말로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 매체로 보았다. 물론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이도 물론 기술의 영역에 속한다. 도시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매체로 기술을 제외시킬 수 없고 경쟁이 기본이 되는 사회에서 기술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는 바로 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기술을 제외시키고서 도시를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커다랗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엘룰이 살던 시대만 해도 기술은 초보단계 수준이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이 시대는 물론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진보가 있었지만 잃은 것이 더 많은 시대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는 아마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전통과 권위와 권력의 상실을 가져왔다. 결국 기술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놓게 되어 전통과 권위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마저도 왜곡시켜 놓았기에 이는 이 시대에 교인들이 급속히 감소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기술의 발달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 절망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엘룰의 기술에 대한 서술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엘룰이 보는 기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절망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하지만 절망의 원인을 기술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에서 볼 것이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갈림길인 것이다. 실존주의적 접근 방식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은 아닌 것이다. 엘룰은 인간의 갈등의 시작을 마르크스를 통해서 인식하기 시작했고 마르크스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마르크스에게서는 그 이상의 해답을 얻을 수 없었기에 그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엘룰에게 있어서 성경은 문제 해결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이는 키에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엘룰을 실존주의자라고 감히 생각해보고 싶기도하고 또한 엘룰도 키에르케고르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존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인간의 죄를 좀 더 근원적으로 보게 하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엘룰은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있다.

5. 현대 도시 문화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

1) 쌍방향

인터넷 문화의 특징은 쌍방향이라는 것이다. 티비도 선택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시청자 의견도 올릴 수 있기에 시청률 가지고 운영이 되는 방송국에서도 시청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 이전 세대는 모든 것이 일방적이었다. 말씀도 테이프나 씨디로 들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기에 대중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설교는 인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마저도 상실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엘룰이 인터넷 문화를 예측하지 못했어도 기술 문화의 발달의 측면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의 선포에 대하여 이성이 답하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모습은 이 시대의 쌍방향의 문화와 맥락을 같이함을 볼 수 있다. 이성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칸트의 비판철학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위에서 키에르케고르와 바르트가 세운 터 위에 엘룰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쌍방향의 문화는 엘룰의 작품세계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자율성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하나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피조성은 상실되고 자율성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외면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다. 이제는 자율성을 가진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새로 만들어야하기에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사람들이 만든 윤리 도덕이 하나의 법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기술이 발달되고 모든 사람의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 정보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법이 되는 힘이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이 되어 스스로 또 하나의 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스스로의 기준이 결국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사실에서 생각해 볼 때 악일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와 인터넷문화등을 통하여 자율성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이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일 수밖에 없기에 엘룰의 절망이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엘룰이 도시의 의미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간의 자율성은 결국 해결의 가능성이 없이 도시 문명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은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라는 의미에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은 인간의 자율성을 하나님께 종속 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이미 하나님은 전적 타자로서 우리를 절망으로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전적인 타자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를 제대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절망 후에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희망을 맞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엘룰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과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연대성

엘룰은 기술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에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이미 기술의 연대성을 예측하고 있다. 기술은 어떤 특정 집단만이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이 발달 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닦아놓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인간들의 연대성의 문제는 죄의 속성상 하나가 되고자하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건이 기술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나 하나의 경제권 속에서 움직이기에 스스로 독립된 조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연대성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을 소외 시키고 스스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하는데 바로 이러한 세계가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바탕을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이러한 기술의 연대성을 통하여 사단이 자신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같이 당면해야하는 현실이기에 이러한 연대성은 바로 최후의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미 도시와 시골의 구별이 없어진 이상 이러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성은 결국 인류가 심판을 앞두고 직면해야하는 현실이지만 인간의 최악이 연대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이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4) 전통의 상실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는 기술이 가치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에 오랜 세월동안 지역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지역적 전통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면서 전통이 없어지고 이제는 세계 어느 도시나 공통된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통이라는 것은 현재의 문화를 이루어온 배경이 되는 것이기에 역사가 살아있는 바탕을 이루는 것이지만 엘룰이 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은 리츨학파가 보아왔던 역사에 대한 관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리츨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빌헬름 헤르만은 인류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헬름 헤르만은 칼 바르트의 스승으로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93 독일 지성인의 성명서”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는 슐라이어마허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범신론적 세계관을 기초로한 역사적 낙관주의에서 나온 것으로서 칼 바르트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칼 바르트의 역사적 낙관주의에 대한 반발은 위기의 신학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이러한 역사적 비관주의가 역사학자였던 엘룰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결국 엘룰에게 있어서 역사란 부정적인 결과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기반을 다져오던 정통기독교는 엘룰에게 별로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찾아지는 진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포기를 선언인 것이다. 정통기독교의 역사는 전통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왔기에 이러한 역사성의 상실은 기독교의 정통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기술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도 있지만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시킴으로서 이미 기술에 앞서서 그 보다도 이성에 의하여 기독교의 역사성은 상실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역사적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역사비판적 영감설을 제시하는데 변증법의 토대를 만들어주었고 여기에 엘룰이 역사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병합하여 변증법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5) 권위의 상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있으셨기에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죄의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간으로서의 왕들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왕권은 상실되었고 성경적이지 못한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이는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제 민주주의의 확대와 더불어 시작된 인터넷문화는 더 이상 왕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권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절망적인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한 부정은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가인이 범죄 함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에녹성을 쌓으면서 기초가 다져졌고 또한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로 인하여 시날 땅에 세워진 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아갔던 것이기에 이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이 시대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고 엘룰이 말하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더욱 합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들이 바로의 강박한 마음이 없었다면 출애굽을 감행하였을까를 생각해볼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리스도인의 힘겨운 삶들은 완전한 출애굽인 하나님나라의 도래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결코 저주와 멸망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엘룰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소돔과 니느웨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저주와 멸망의 결론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6) 권력의 상실

공권력이 없다면 사회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다. 예전에 뉴욕에서의 잠깐 동안의 정전 사태는 한마디로 지옥이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범죄는 극에 달한 시간이었다. 권력이 없다는 것은 곧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기관이 있어야지만 사회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수가 없고 교사가 학생에게 매를 들 수가 없다. 국가는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만을 집행할 뿐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말씀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누가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능력으로 징계하셨지만 전통과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는 잘못에 대하여 사용될 징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니느웨의 회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엘룰은 말한다. 소돔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었기에 바로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고 이러한 논리는 니느웨와 소돔 보다는 애굽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용했다면 멸망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능력으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6) 윤리 도덕의 변화

엘룰은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선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은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윤리 도덕은 더 이상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말할 수 없고 오직 말씀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기준이 바뀌어버린 상황에서는 절망적인 파괴 없이는 희망을 볼 수 없다고 엘룰은 말한다. 바로 엘룰은 도시의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도시가 파괴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선이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엘룰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 비판주의에 기초하여 이 세상의 제도를 가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엘룰이 보는 선의 관점에서는 도시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옷이면서 또한 잘못된 윤리와 도덕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바탕으로 한 새 예루살렘에만 관심을 두어야하는지 생각해보아야할 일이다.

6.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가치관이 대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되고 아무 의식이 없이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분야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심한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크 엘룰의 역할 중의 하나는 이제껏 우리가 아무 문제없이 접해오던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자크 엘룰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자크 엘룰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의 서적들을 좀 더 많이 접해보면서 나름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7. 좀 더 완성되고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

1) 기술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차라리 죄 의식 없이 받아들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명의 편리를 즐겨야 할지 아니면 끊임없이 죄의식을 가지며 아미쉬와 같이 문명을 멀리하는 생활을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크 엘룰의 방법도 생각해 보지만 이러한 선택의 고민 이전에 우리에게 좀 더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속된 것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미 죄 가운데 속된 사람들이 속된 것을 피한다고 안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일 것이다.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2)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적 접근방법

엘룰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적 방법은 오히려 엘룰에게 하나의 변증법적인 접근방법을 생각하게 했고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적인 접근 방법은 엘룰로 하여금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삶의 분야들을 정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던 것 같다.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적 고민에서 하나님으로 결론을 얻은 것과 같이 엘룰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마르크스적인 생각이 현실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오히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 볼 수 있는 몰트만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란시스 웨퍼가 키에르케고르를 보는 입장은 절망의 선을 넘은 사람으로서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오히려 엘룰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엘룰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희망에 대한 실존주의적 접근 방법이 성경적이냐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실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야 했고 그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야 하는데 이에 반하여 엘룰은 실존주의적인 고민과 비판에서 출발했고 인간적인 절망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냈던 것이다. 이는 성경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한 결과로 나온 부적절한 결론이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략된 과정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바르트의 퀘변론을 수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보편구원설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3) 칼 바르트와의 관계

엘룰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은 아마 칼 마르크스와 칼 바르트일 것이다. 칼 바르트는 엘룰이 마르크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제공해주는 소스가 되었고 엘룰에게 있어서 바르트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엘룰을 바르트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 엘룰과 바르트는 생각의 영역이 다르며 또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영역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교회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엘룰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엘룰은 바르트가 너무 진보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제동을 걸었고 한계점들을 설정하였기에 모든 면에서 바르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가 엘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한 부분들인 기술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회학적인 면에서의 분석이 너무도 예리하고 날카로우며 이러한 생각들이 바르트적인 성경해석 이전에 어떤 면에서는 칼빈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칼빈주의적 해석과 충돌이 별로 없었기에 스스로 자신들을 신칼빈주의나 신정통주의라고 불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관점과 구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면 과연 칼빈이나 정통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만 하다.

4) 무정부주의자 엘룰?

사람들은 엘룰을 쉽게 무정부주의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엘룰에 대한 이해력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엘룰은 정부의 조직과 틀을 꼭 필요한 조직으로 보고 있지만 그가 아니키스트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정치조직의 너무 부정적인 면들 때문일 것이다. 세상 조직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으로서의 역할을 종종하기에 이러한 국가의 역할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엘룰은 정부에 대한 개념에서 바르트와 생각을 달리하고 바르트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엘룰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다면 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볼 때는 그의 삶이 신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엘룰과 카이퍼를 비교해보면서 삶의 방식을 선택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보편구원론?

도시는 이제 일반화되어있고 또한 시골과 도시의 구별이 없어진 상태이기에 도시라는 의미는 모든 인류가 처해있는 보편적 환경임을 의미한다. 모든 인류가 여기에 속해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기에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엘룰의 종말론적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보편구원론에 귀착되어야지만 답이 있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에게서 찾지 못했던 희망을 신앙에서 찾으려고 한 심리적 주관주의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심리적 주관주의는 키에르케고르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바르트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엘룰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신앙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시작했고 인간 역사는 새 창조와 부활로 인도 받을 것이기에 결국 잃어버릴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 땅에서의 실패는 정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엘룰이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었던 비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생각들이다. 엘룰은 더 이상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편 구원론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구원에 필요한 본질적인 것으로 믿기 보다는 다만 소망을 위하고 과거와의 결별과 삶의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엘룰의 생각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6) 엘룰에게 그리스도는?

엘룰의 저서들의 특징은 그 방대한 분량과 광범위한 논술분야들에 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는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문제를 빈약하게 다루고 있기에 그에게 이 세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를 추수할 때에 비유하면서 그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라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것이다. 추수 때는 희망의 시기이기에 이 시기는 심판이라는 의미보다는 결실을 보는 낙관적인 시기라는 생각을 해볼 때 꼭 절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둠 뒤에 오는 새벽 혹은 절망 뒤에 오는 희망이라는 방식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어둠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절망보다는 오히려 과정 가운데 기쁨과 희망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7) 이원론적 접근방법

세상의 모든 구조를 이원론적으로 보면서 선과 악이라는 대립 구조 속에서 문화와 윤리를 봄으로서 이원론적 접근을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 속에서 비관원리를 신학의 원천으로 삼음으로서 회의적이 되고 소망이 없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칸트의 객관적 추론에서 유래되어 현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드러나심을 완전히 배제한 바르티안적 사고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역사 속에서 견고하게 다져온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적인 개혁신앙을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신정통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엘룰에게는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엘룰에게는 놀라우리만큼 이러한 점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많은 책들이 저술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엘룰에게는 삶의 윤리 도덕적인 면이나 기술문화적인 면이나 모두 문제점일 수밖에 없고 이는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악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 오히려 것으로 드러나는 악보다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의 문제를 보셨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근원적인 죄를 보지 못하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했던 것을 질타하셨듯이 엘룰도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를 생각하지 않고 현상적인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히포크리이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를 뛰어넘고 있다. 즉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을 덕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엘룰이 제기하는 문제를 수용하면서도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자크 엘룰의 저서들은 놀라우리만치 우리에게 안개 속에 희미했던 사실들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학적인 문제들을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율법처럼 우리에게 드러내어주고 있는데 이는 마치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없듯이 사회학적인 문제들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듯이 들린다. 맞는 말이다. 엘룰이 제기 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껏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이 사실이다. 엘룰의 책들은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엘룰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쉽게 동의가 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엘룰에게서 많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만하다.

김원호 (강릉연세치과의원 원장)